

세월호 잇었으나... '울산 관광버스 참사' 총체적 안전 불감

# 비상망치 못찾고 소화기 불량... 또 '人災'

정부 뒤늦은 안전기준 개정 추진...광주시도 버스 일제 점검

20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안전 불감증, 운전기사의 운전 부주의와 직업 의식 부재, 버스 내 안전장치 부실이 빚어 낸 사고라는 지적이다.

화재 발생시 유일한 탈출 도구인 비상용 망치는 사용할 수 없었고, 비상구 조차 없어 사상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끼어들기에 의한 사고를 인정한 버스기사가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탑승객의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버스 내 비상망치 비치와 사용법 안내, 비상 탈출 통로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가을 단풍철을 맞아 '달리는 시한폭탄'을 이용해 관광과 수학여행에 나서야 할 지역민과 학교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20명 사상...운전기사 구속=16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0시11분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언양분기점에서 경주IC 방향 1km 지점을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나 전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0명 중 10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가 당시 제한속도 80km인 도로에서 100km 이상 속도를 내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고 지점은 목적지인 울산으로 들어가는 언양분기점 램프 500m 앞 도로로, 이씨가 언양분기점을 코

앞에 두고 속력을 내며 과도하게 끼어들다 갓길에 세워둔 방호벽과 충돌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

◇비상 탈출 장치 전무=이번 사고는 승객들이 탈출할 기회를 놓치면서 많은 희생자를 냈다. 차문이 콘크리트 방호벽에 막히면서 열리지 않고 버스 오른쪽에는 불길이 치솟았다.

유일한 탈출 방법은 왼쪽 유리를 깨고 뛰어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승객들은 어둠 속에서 탈출용 비상망치를 찾을 수 없었다. 사전에 탈출용 비상망치의 위치와 사용법에 대해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고 버스 내에 유일하게 비치돼 있던 소화기 1대도 안전핀이 뽑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고, 승객들이 위급한 순간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도 없었다.

울주경찰서는 "가이드 진술에 따르면 운전기사 이씨가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버스 출발 전 탈출용 비상망치의 위치 등을 승객에게 알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가 난 관광버스에 장착돼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블랙박스가 불과 열기에 녹아 경찰이 사고 당시 정황을 정확히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짙은 선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리강화는 충격을 받게 되면 유리조각이 통째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여성도 쉽게 깨 수 있는데, 선팅으로 조각이 나지 않고 통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탈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비상망치 위치 안내·비상구 설치 의무화"=국도교통부는 16일 시외·고속, 전세버스에 사고 대처요령, 비상망치, 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안내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10월4일~11월12일)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고, 비상망치에 형광태이프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버스 내 비상구(비상해지)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광주시도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2000여대에 대한 시설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10개 업체 시내버스 1041대에 대해 공용 차고지와 주요회차지에서 안전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와 함께 전세버스 1124대의 교통사고 시 대처 요령, 안전교육 실시 여부, 타어미 사고 상태 등도 함께 점검기로 했다.

◇대형버스 사고 5건 중 1건 단풍철 집중=대형버스 사고 대부분이 가을철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고로 단풍 관광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에 나설 예정이던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버스 교통사고는 2282건으로, 이 중 가을철인 10~11월이 전체의 20.9%를 차지했다. 5건 중 1건은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는 셈이다.

한 산악회 관계자는 "단풍여행을 계획 중인데, 관광버스 안전에 대해 문의하는 회원들이 많아 전세버스 회사에 안전장치 등을 갖춘 버스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



스케치북이 된 광장 1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서 열린 '2016 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프로그램 '나도 아티스트! : 광장 스케치북'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바닥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잇따른 해상 사고... 원인은 해양쓰레기

여수 낚시어선 2척 폐그물 등에 걸려 좌초·표류

해상에 떠다니는 폐 그물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낚시 어선이 좌초하거나 표류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55분께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인근 해상에서 19명이 탑승하고 있던 낚시어선 H호(9.77t)가 갯바위에 좌초했다.

H호는 사고 당일 갈치 낚시를 마치고 여수시 국동항으로 입항하던 중 백야도 앞 해상에서 폐 가두리에 부딪혀 좌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꾼 17명 등 승선원 19명은 출동한 해경과 인근을 지나던 낚시 어선에 구조됐

다. H호는 선박 아랫부분이 3m가량 부서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7시45분께에는 여수시 남면 소리로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J호(9.77t)가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낚시꾼 5명 등 배에 타고 있던 7명을 구조하고, 선박을 예인조치했다.

J호는 13일 오후 3시께 갈치 조업차 여수 국동항에서 출항했으나 1시간40분여 만에 추진기에 폐 그물이 걸려 시동이 꺼지면서 표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0 해질 17:55  
달출 19:00 달짐 07:30

출근길 쌀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충청	강원	경남	제주
광주	흐림	16/24	흐림	15/24	흐림	17/23	흐림	17/26
부산	흐림	18/24	영광	흐림	15/23	흐림	15/24	진도
대구	흐림	18/24	전주	흐림	16/24	흐림	18/22	완도
대전	흐림	18/24	전주	흐림	16/24	흐림	18/22	진도
충청	흐림	15/25	군산	구름많음	16/22	흐림	16/24	남원
강원	흐림	16/24	남원	구름많음	15/24	흐림	16/24	속산도
경남	흐림	16/24	속산도	흐림	17/20	흐림	15/23	장성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서~북서 1.0~2.0	북~북동 1.0~1.5
남부 서해 앞바다(동)	북동~동 0.5~1.0	북서~북 0.5~1.0
남부 서해 앞바다(서)	북동~동 1.0~2.0	북서~북 1.0~1.5

◇ 월매	간조	만조
목포	07:51	02:34
	20:16	15:04
여수	03:18	09:42
	15:40	21:57

◇ 주간 날씨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	☀	☀	☀	☀	☀	☀
	14/25	12/25	12/25	15/22	15/22	14/20	11/20

## 광주 학교 '석면 위해성' 전국 최고 수준

617곳 중 54% 건축자재 사용...중간 등급 75%

광주 일선 학교들의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온 데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현 광주시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의에서 "광주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617개 학교 중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 학교는 335곳으로 54.3%"라며 "특히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등급이 250곳으로 74.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시·도 1만4200곳의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등급이 겨우 1.9%(259곳)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전남 등 13개 교육청은 한 곳도 없다. 위해성 평가는 진동이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석면함유량, 인체 노출 가능성 등을 평가(0~3점)해 20점 이상이면 높음, 12~19점은 중간, 11점 이하의 낮음등급으로 평가한다.

광주교육청은 이와관련 "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 가동시 생기는 진동과 기류, 누수에 의한 석면의 잠재적 손상에 점수를 준 반면 다른 교육청은 점수를 거의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 "자유학기제 수업 이념편향 자료 활용 금지"

광주교육청 홈페이지 부적합 자료 논란

교육부 "재발시 엄정 조치" 공문

교육부가 광주를 비롯,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자유학기제 관련, '부적합 자료 사용 금지' 공문을 내렸다. 광주시교육청이 이념 편향적인 자유학기제 수업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이후 이뤄진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 확인 국정감사에서 보고자료를 통해 "(광주교육청과 같은) 동일 사항 재발방지 경위조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해당자 및 학교장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조치는 지난 6일 이뤄진 전국 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광주교육청의 통일·인권 관련 자유학기제 활용 자료를 놓고 '이념 편향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연합뉴스

**EAGLEEYED**  
이글아이드 골프화

**2969** (25%가감)

**가볍다. 편하다!!**

ADD FG2

방수 탁월  
접지력 우수 · 친환경 소재  
100% 국내 자체 생산  
철저한 사후관리

www.eagleeyed.co.kr  
전화 상담 032)523-4075  
직영점 인천골프백화점 032)521-3075  
가까운 매장에서 구매 하시면 됩니다.